

“고용이 큰 걱정... 일자리 보존에 역량 집중”

문 대통령, 靑 수호회의 모두 발언

“고용 유지 비용 헛돈 아냐... 복지 비용 감안하면 생산적 투자 IMF 경험 되풀이 말아야... 일자리 살리는 길 반드시 찾아야
실업자 위해 공공부문 역할... 한시적 긴급 일자리 제공 등”

문재인 대통령은 13일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이겨내는 데 가장 큰 걱정이 고용 문제”라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극복을 위한 향후 경제 정책으로 고용 문제 해결에 집중할 방침을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 비서관·보좌관 회의 모두 발언에서 “이미 대량실업 사태가 발생한 나라들이 생겨나고 있다. 우리나라도 고용보험 가입자의 증가폭이 크게 줄고 실업급여 신청자가 크게 늘기 시작했다”며 “이렇게 말했다. 이어 “지금은 고용의 시작일지 모른다. 특단의 대책을 실행(失)하지 않고 세워야 한다”며 “경제위기 국면에서 정부는 일자리를 지키는 것에 정책적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일자리가 무너지면 국민의 삶이 무너지고 그로부터 초래되는 사회적 비용은 이루 말할 수 없다”며 “고용유지에 쓰는 돈은 헛돈이 아니다. 일자리를 잃을 경우 지출해야 할 복지비용을 감안하면 오히려 비용을 줄이고 미래를 대비하는 생산적 투자”라고 말했다.

또 “가장 주안점을 뒀어하는 것은 어렵더라도 기업들이 고용을 유지하도록 만드는 것”이라며 “국제통화기금

(IMF) 위기 때 많은 일자리를 잃었던 경험을 되풀이하지 않아야 한다. 기업과 노동계, 정부가 함께 기업도 살리고 일자리도 살리는 길을 반드시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다음 주에 주재할 제4차 비상경제회의에서 고용 문제를 공식 의제로 다루겠다고 관련된 준비를 당부하기도 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부터 고용을 유지하는 기업들에 대해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지원책을 검토해 보다 과감하고 적극적인 대책을 강구해 주기 바란다”며 “경제사회노동위원회를 비롯한 정부 위원회들도 특별한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한편으로 우리 정부 들어 고용보험 가입자가 크게 늘어 고용안정망이 대폭 강화됐지만 여전히 고용보험의 사각지대가 많다”며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자영업자와 플랫폼 노동자, 특수고용 노동자 등 고용보험 미가입자에 대한 지원책 마련에도 심혈을 기울여 주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아울러 “일 자리를 잃었거나 잃게 될 분들에 대한 대책도 필요하다. 공공부문이 역할을 하지 않을 수 없다”며 “공공사업을 앞당기거나 한시적으로 긴급 일자리를 제공하는 방안 등 다양



문재인 대통령이 13일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한 대책을 준비해 주기 바란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경제 위기 극복에 있어 방역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방역과 경제가 서로 무관한 별개의 사안이 아니라는 점을 부각하며 계속해서 철저한 방역을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방역 당국을 중심으로 모두의 노력이 함께 모인 결과 방역 전선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커지고 있다”며 “우리 방역의 성과가 국제사회로부터 인정받으며 국가적 위상도 높아지고 있다”고 언급했다.

또 “투명성·개방성·민주성의 원칙과 선진적인 방역 기법은 국제 표준이

되고 있고, 진단키트 등 ‘베이드 인 코리아’ 방역 물품 수출이 급증하면서 방역 한류 바람도 일어나고 있다”고 전했다.

문 대통령은 “지금 우리가 치르고 있는 선거도 국제사회의 큰 관심사”라며 “우리가 전국 규모의 치열한 선거를 치러내면서도 방역의 성과를 잘 유지할 수 있다면, 정상적인 사회시스템과 일상사회로 돌아갈 수 있다는 희망을 국제사회에 줄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런 면에서 역대 최고의 사전투표율을 기록하며 선거로 인한 방역 부담을 분산시켜 주신 국민들의 집

단 지성에 다시 한 번 존경의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지금까지의 성과가 적지 않지만, 아직 안심할 단계가 아니다. 무엇보다 큰 내부의 적은 방심”이라며 “차질 소홀히 했다가 그동안 수고와 성과가 한순간에 물거품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힘들지만 지치지 말고 서로를 격려하며 조금만 더 힘을 모은다면 우리는 승리의 고지를 밟을 수 있다. 이 전쟁에서 승리를 이끄는 힘은 오직 국민에 있다”며 마지막 순간까지 방심하지 말 것을 강조했다.

/뉴시스

총선 전북 현황, KBS 특별개표방송으로

KBS 전주방송총국 15일 오후 6시부터 방송

KBS 전주방송총국이 보다 차별화된 개표방송으로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결과를 시청자들에게 신속하게 전달한다.

투표마감 시간인 15일 오후 6시 정각 ‘전국 특별개표방송’을 시작으로, 6시 30분부터는 KBS 전북권 특별개표방송 1부’와 함께 ‘KBS전북’ 유튜브·페이스북을 통해 전북 10개 선거구에 대한 출구조사 결과를 10분간 생방송한다.

‘전북권 특별개표방송 1부’에서는 출구조사 결과와 함께 격정이 예상되는 선거구 후보 선거사무소를 차례로 연결해 생생한 총선 분위기를 시청자들에게 선사한다.

이어 오후 7시부터 총선 개표가 마무리되는 새벽 시간대까지 KBS 1TV에서는 KBS전국권 특별개표방송과 함께 ‘전북권 특별개표방송’을 4차례 이상 생방송한다. 같은 시각 ‘KBS전북’ 유튜브와 페이스북에서도 TV로 생방송을 하는 ‘전북권 특별개표방송’을 실시간으로 시청할 수 있다.

매 시간 대 ‘전북권 특별개표방송’에는 현지 정치부 기자와 정치평론가가 차례로 출연해 자체 출구조사 결과와 함께 총선을 직접 취재하면서 느낀 경험담, 취재후기, 앞으로 정치지형 변화 가능성 등을 짚어보는 시간을 마련했다.

/특별취재반

‘48cm’ 투표지에 총선 개표시간 사상 최장

16일 새벽에 비례 ‘윤곽’

이들 앞으로 다가온 4·15 총선은 개표 완료까지 역대 선거에서 가장 긴 시간이 소요될 전망이다.

이번 총선에 도입되는 준(準)연동형 비례대표를 노리고 비례 후보를 등록한 정당이 쏟아져나오며 따라 48.1cm에 달하는 비례대표 투표용지를 일일이 수개표해야 하기 때문이다.

13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2000년 이후 치러진 최근 총선에서는 투표 마감 이후 개표에 평균 6.5시간이 소요됐다.

최장 시간이 소요된 선거는 지난 20대 총선으로 7시간50분이 걸렸으며 2004년 17대 총선은 6시간37분이 걸렸다. 2012년 19대 총선과 2008년 18대 총선은 6시간23분씩 걸렸고 2008년 18대 총선은 5시간41

분 만에 개표가 완료됐다.

그러나 21대 총선의 경우 비례대표 선거에서 투표지분류기를 사용하지 못해 개표시간이 많이 늘어날 것이라고 선관위는 전망했다.

이번 총선에서 35개 정당이 등록한 비례대표 선거에 사용될 투표 용지의 길이는 48.1cm다. 이는 33.5cm를 기록한 지난 20대 총선 비례대표 투표용지를 넘어 역대 국회의원선거에서 가장 긴 투표용지다.

투표지 분류기는 총 길이가 34.9cm를 넘지 않아야 사용이 가능하다. 이 때문에 이번 총선에서는 100% 수개표가 필요하다.

21대 총선을 위해 인쇄된 비례대표 투표용지는 4350만장에 이른다. 만일 투표율이 지난 총선과 같은 58.0%라고 가정한다면 2523만장에 대한 수개표가

필요한 셈이다.

선관위는 이번 총선의 개표관리에 7만4000여명의 인력을 투입할 예정이다. 전국 1만4330개 투표소에서 사용될 2만7700여개 투표함은 오후 6시 투표 마감 이후 특수용지로 봉인해 관리관과 참관인 등이 경찰의 호송을 받아 전국 251개 개표소로 이송한다.

시군구별 선관위에서 보관하고 있는 사전투표함과 우편투표함도 각 정당이 추천한 선관위원과 참관인, 경찰이 함께 개표소로 옮긴다.

다만 지역구 선거의 경우 투표지분류기로 분류가 가능하다. 이에 따라 지역구 당선자는 과거 총선과 비슷하게 투표 당일 지정해 대략적인 결과가 나올 것으로 보이지만 비례대표 결과는 다음날 새벽이 지나야 윤곽이 드러날 전망이다.

/뉴시스

상패·트로피제작 전문업체

명품종합상사

TOTAL ADVERTISING WORLD

김한경

광고사업부

트로피 / 상패 / 명패
실사현수막 / 각종깃발
팸플릿 / 리플릿 / 각종인쇄

판촉사업부

기념품 / 판촉용품
단체복 / 기념타올

전주시 완산구 문화광장로23 신화빌딩 1층
사무실 : 063-232-2323
063-251-4664
F A X : 063-286-4665
Mobile : 010-3656-8657
E-mail : mpct2323@hanmail.net

www.mp2323.com

4·15 총선 후보자 이모저모

김윤덕 “절대 방심하지 않고 끝날 때까지 최선을 다할 것”

더불어민주당 김윤덕 후보(전주갑)는 지난 10일 열린 방송사 토론회에서 “4년 전 낙선한 이후 최선을 다한다는 말을 가슴에 새기고 노력해왔다”며 “절대 방심하지 않고 선거가 끝날 때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김 후보는 “이번 국회의원선거는 문재인 정부를 지켜내고 또 성공시켜서 발전된 전북, 희망찬 전주를 만드는 선거”라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구도심 활성화방안, KTX중편문제, 전북 발전 방안 등에 대해 토론을 이어갔다.

또한, 김윤덕 후보는 투표전 마지막 주말 유세를 이어갔다. 김 후보는 선거운동 기간 마지막 휴일인 지난 12일 봄을 맞아 등산객들이 몰려든 모악산 일원에서 투표 활동을 이어갔다.

/특별취재반

윤준병 “당선 무효 주장은 선거 공세... 안심하시길”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후보(정읍·고창)는 “유성엽 후보가 ‘선거공보’ 경력 허위 기재는 당선 무효가 가능하다”고 무차별적인 문자를 발송하고 있지만 이는 악의적인 선거공세에 불과하니 유권자께서는 안심하시라”며 일축했다.

특히 유성엽 후보가 의의제기한 2건 중 전북도 선관위가 수용한 1건에 대해서도 “충분한 소명자료가 있어 당선 무효의 대상이 아니다”고 잘라 말했다.

전북도 선관위는 지난 10일 유성엽 후보가 (윤 후보의)선거공보상 수상 경력이 2건 모두 허위다”며 의의제기한 내용 중 ‘제1회 서울정책인 대상’ 수상은 기각하고, 다른 ‘제1회 대한민국 지방자치 정책 대상’은 ‘허위로 기재했다’고 판정했다.

/특별취재반

이강래, 상대 후보 측에 “흑색 선전 중단하라”

더불어민주당 이강래 후보(남원·임실·순창)는 이윤호 후보 측에서 주장하는 ‘이강래 후보 측 추정 식사제공과 후원물품 제공’ 의혹과 관련해 이는 이강래 후보 선거사무실과는 무관하다면서 선거관리위원회의 신속하고도 철저한 조사를 촉구했다.

이는 이윤호 후보측이 보도자료를 통해 이강래 후보 측 관계자로 추정되는 순창지역 유력인사의 부인들이 이강래 후보 유세 후 순창읍내 모 식당에서 사전투표에 참여한 어르신들에게 식사를 제공했다는 주장과 다량의 후원물품을 장애우 가정에 제공했다는 것에 대한 반박으로, 순창선관위 관계자에게 확인한 결과, 이윤호 후보 측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사실관계 확인이 어려워 추가 자료와 함께 소명을 요구했다는 것이다.

/특별취재반

